

초산, 12월에도 가격인상 어렵다!

10-11월 수요량 5% 증가 ... 비수기 및 수입품 오퍼가격 하락으로

12월 용제시장의 초산(Acetic Acid) 가격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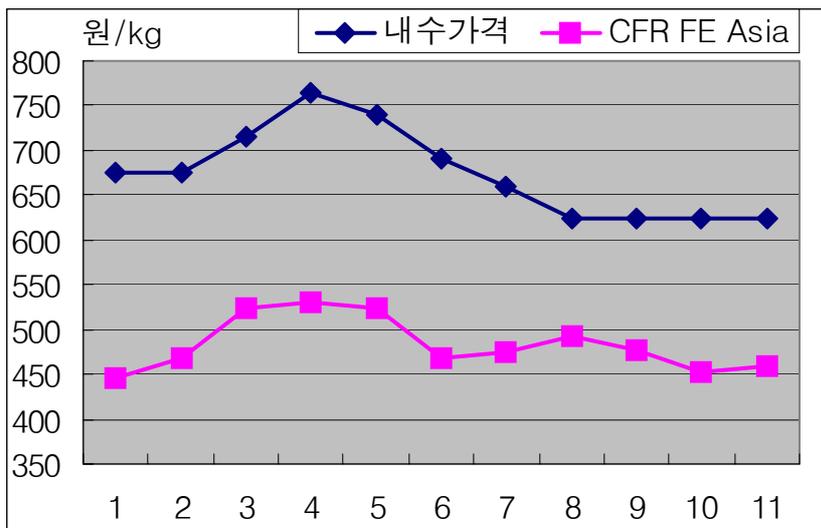
초산 생산기업 관계자는 “10월과 11월 수요가 평균 5% 가량 늘어났고, TPA(Terephthalic Acid)용 초산 가격이 3/4분기 30달러 인상된 점을 감안해 식품첨가용 및 염색용 초산 가격도 일부 올릴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식품첨가용 및 염색용 등에 사용되는 용제용 초산가격은 성수기로 구분되는 7-9월까지 환율하락과 수요감소로 인해 TPA용 인상폭을 시장에 반영시키지 못해 10월과 11월에 가격이 동결돼 왔다.

최근에는 초산 수입기업들의 수입이 늘어나 수급상의 문제가 해결됐고, TPA용 초산이 톤당 450-460달러에 거래되는 반면 수입품의 오퍼가격이 450달러로 국내 초산 생산기업인 삼성BP화학과 동양제철화학의 독자적인 가격인상은 힘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초산 수입기업들의 가격정책에 따라 12월 초산가격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산 가격추이(2003)



TPA용으로 공급되는 초산은 말레이시아 BP Petronas Acetyls이 3/4분기와 4/4분기 초산 가격인상분을 톤당 70달러로 발표함에 따라 국내에서 TPA 생산기업에 초산을 공급하는 삼성BP화학이 3/4분기에 톤당 30달러를 인상했고 4/4분기에 톤당 40달러 인상을 추진중이다.

초산의 원재료인 Methanol은 국내 공급하는 일부 플랜트가 10월말 경에 트러블이 일어남에 따라 일시적인 Methanol Shortage를 겪어 Spot 시장에서 일부 상승했으나, 12월부터 공급에 차질이 없다는 Methanol 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라 ACP(Asia Contract Price)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Methanol 가격상승에 따른 초산 가격인상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초산 수입기업은 한솔케미언스 및 한화가 Celanese 제품을, 후성물산이 Daicel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외에 Showa Denko 제품이 일부 공급되고 있다. <김동민 조사연구원>